

올 중고차 시장 베스트 셀링카 그랜저 HG·BMW 뉴 5시리즈

<국산차>

<수입차>

YF쏘나타·아반떼 MD...

10위권내 현대차 휩쓸어

기아차 K5 유일하게 7위

수입차 비중 21.5%로 증가

올해 중고차 시장에서 국산차는 현대차의 그랜저 HG, 수입차는 BMW 뉴 5시리즈가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중고차 전문업체 SK엔카는 23일 올 한 해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중고차 매물을 집계한 결과 국산차와 수입차 부문에서 두 차종이 가장 많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산 중고차는 그랜저 HG에 이어 YF쏘나타, 아반떼 MD 순으로 집계돼 신차 시장에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대표 모델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차종이 10위권 내 순위를 점령한 가운데 기아차의 중형 세단 K5가 유일하게 7위에 이름을 올렸다. K5는 현대차의 LF쏘나타가 출시된 이후 구형 모델이 된 YF쏘나타를 대신해 찾은 소비자가 늘고 있다.

수입 중고차는 올해 전체 매물의 14.3%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BMW 뉴 5시리즈와 BMW 뉴 3시리즈가 최고판매 모델 1, 2위를 차지해 '수입차 절대 강자' 자리를 지켰다.

아우디(3위·뉴 A6)와 벤츠(4위·뉴 E-클래스), 폴크스바겐(7위·6세대 골프)의 주요 모델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려 독일



그랜저 HG



BMW 뉴 5시리즈

브랜드간 치열한 순위 싸움을 보여줬다.

차종별로는 국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입차는 중형차가 가장 많이 등록됐다. 국산 SUV는 최근 실용적인 소비 성향과 캠핑, 레저 열풍 등을 반영해 지난해 19.3%에서 올해 21.5%로 증가했다. 수입차에서는 중형차와 준중형차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기존에는 중형차와 대형차가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수입차 구매 연령대가 20~30대로 낮아지면서 대형차를 제치고 준중형차가 2위에 올랐다.

연료별로는 국산(56.2%)과 수입(64.0%) 모두 가솔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국산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 중고차는 디젤 비중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 가솔린은 72.6%, 디젤은 25.8%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가솔린이 64.0%로 하락하고 디젤은 34.2%로 증가했다. SK엔카의 최현석 마케팅부장은 "디젤차는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잔존가치가 보장돼 되팔 때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 다양해 찾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하이브리드카 유가하락 직격탄



최근 출시된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유가하락이 자동차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동차 구매 수요를 늘려 시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하이브리드가 등 친환경차 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시장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1~5월에는 월평균 251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이 본격화된 6월부터 하락세로 반전돼 6~10월에는 월평균 1927대로 작년보다 1.4% 감소했다.

10월 판매량은 1842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줄어들었다. 유가가 계속 하락세에 있어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매력력이 줄어든 때문이다.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는 현대·기아차의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K5, K7, 한국GM의 알파온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더 비싼 차값을 내고 하이브리드카를 사는 게 과연 경제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5월중 판매량

작년보다 26% 증가

10월 판매는 6.3% 급감

고 말했다.

국내에서의 하이브리드카 부진 현상은 이미 미국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1~10월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은 총 38만77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 비중도 지난해 3.3%에서 올해 2.8%로 줄어들었다.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1년 27만대, 2012년 43만 5000대, 2013년 49만6000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터였다. 올해 판매시장세가 처음으로 꺾임에 따라 올해 판매량은 46만~47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에 강한 도요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올해 들어 10.7% 감소했다. 대표 모델인 프리우스의 1~10월 미국 판매량은 16만6680대로 지난해보다 13.3%나 줄었고 캠리 하이브리드 판매량 역시 10.0% 감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연비 향상 규제를 강화하는 각국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카를 비롯한 친환경차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도 "일시적인 유가하락에 장단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글로벌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차 개발과 관련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카를 현재 4종에서 12개 차종으로 늘리는 등 친환경차 모델을 7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해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2위의 친환경차 업체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지난달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쿠바 명물 ‘골동품 자동차’ 사라질까

쿠바 수도 아바나에 처음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색 풍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다.

생산된 지 50~60년 된 자동차들이 위풍당당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반세기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1962년 미국이 금수조치를 취한 뒤 자동차 수입이 제한된 쿠바에서 자동차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골동품’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끈다.

운행에 가장 어려운 점은 부품 조달이었으나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소모품과 함께 부품 등이 수입되면 ‘더 오래’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아바나 시가지에는 1950년대에 생산된 포드, 세비, 뷰익, 폰티아 등을 포함해 캐딜락이나 크라이슬러의 컨버터블 등이 관광객을 위한 택시 또는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대부’ 등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

美와 국교 정상화 금수 해제

수입차에 종적 감출지 관심

했던 오래된 승용차를 타보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기도 하다.

생산된 지 60년이 넘는 자동차의 엔진이 어떻게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운전사에게 물어보면 해소된다. 택시로 이용되는 1954년산 포드의 엔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운전사는 ‘운다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현대차 엔진을 쓰는 운전사가 ‘현대’(HYUNDAI)를 스페인 어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외에 일본의 미쓰비시 등 세계적 자동차 업체의 엔진들이 수명을 다한 원래 엔진을 대신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엔진을 교체했다 해도 타이어 등 소모품과 중요 부품들은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쿠바 실정이다.

생산된 지 반세기 넘는 자동차를 골

라게 하는 원동력은 쿠바인들의 ‘인벤토르’(inventar) 정신이다.

고안이나 발명 등의 사전적인 의미인 이 말은 ‘이거 없으면 잊음으로’라는 한국의 격언과도 의미가 상통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의 부품이 남아 못쓰게 되거나 소모품이 떨어지면 임시 변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원활한 부품 조달로 이들 자동차가 더 오래 연명할지, 아니면 저가의 자동차가 밀려들어 오면서 점차 종적을 감출지 관심이 쏠린다. 쿠바 정부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수입 신차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올해 초 해제했으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다.

2013년형 ‘푸조508’ 모델은 영국의 자동차판매 웹사이트에서 3만 달러 안팎이지만, 쿠바에서는 26만2000 달러에 책정되는 등 생산 국가에서 팔리는 시세의 10배 안팎으로 비싸다.

/연합뉴스

쌍용차 11만여대 리콜

렉스턴 등 4개 차종 바퀴 빠짐 결함

쌍용자동차가 렉스턴 등 4개 차종에서 바퀴가 빠지거나 잠기는 제작결함을 발견해 11만 여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05년 6월1일~2010년 11월17일 제작된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등 11만2920대다.

카이런이 3만7313대로 대수가 가장 많으며 액티언(2만8724대), 액티언스포츠(2만7068대), 렉스턴(1만9815대) 순이다.

이번 리콜은 볼조인트(바퀴가 주행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차체에 연결된 부품)가 빠지거나 파손되는 결함으로 바퀴가 비틀리거나 잠겨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쌍용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우편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스마트폰 길 안내 앱

차량용 미러링 서비스 인기

스마트폰의 길 안내 앱을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용 미러링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유브릿지가 개발한 차량용 미러링 솔루션 ‘카링크’가 국내에 수입된 벤츠, BMW 미니, 인피니티 등 고급 승용차들에 잇따라 공급됐다. 또 킴크웨어, 현대엔엑스소프트, 마이스터, 큐디스 등 국내 내비게이션 전문 제조사들에도 최근 보급됐다.

아이머큐리는 카링크 전용 동글을 기본으로 장착한 내비게이션 ‘A 클래스 ME’를 최초로 선보였다. 카링크는 스마트폰의 모든 앱 화면과 소리를 무선으로 내비게이션에서 공유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따라서 내비게이션으로 멜론, 엠넷 등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문자와 카카오톡 등 SNS도 이용할 수 있다. 카링크 동글 가격은 4만원대로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원 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 328평, 33가구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 2015년 5월 완공 예정
- 조성 후 평당 80만원 예상
- 매매가 1억 312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빌라 3층 34평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천 파크 빌라 3층 304호

- 2013년 준공, 5층중 3층, 전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7천만원(일시불)
- 즉시 입주가, 내부 깨끗함

주인직매 H. 010-3180-8900

특수경매 배우면서 단독·공동 투자 하실 분!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010-3605-5000